



## 오스트리아 Austria 편

### 국내시장에서 싸우는 수입계란과 국산계란

\* 어느 나라이던간에 양계업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 \*  
\* 락을 앓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는 달 \*  
\* 리 수입계란과 수입육계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 \*  
\* 다. 정부가 동구제국에 기계류를 파는 대신 그들 \*  
\* 로부터 계란을 수입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 \*  
\* 에 오스트리아 양계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 \*  
\*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우리가 우리의 양 \*  
\* 계를 안정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생산조절 \*  
\* 문제, 수출 문제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는 \*  
\* 지금 내용이 다르고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 \*  
\* 의 일이지만 그들의 대책에 공감을 보낼 수 있을 \*  
\* 것이다..... \*

폴트리 인터내셔널 1971년 11월호

유 상 철 역

<한국 가금협회 편집부>

지난 3년간 오스트리아 가금협회는 사료공장의 지원을 받아 국산 계란과 닭고기의 판매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다. 이 판매촉진 운동의 목적은 수입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양계생산자가 당하는 위협을 막고 안정된 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피나는 투쟁이었다.

오스트리아가 최근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ids 동구상호경제원조 회의)과 유럽공동시장 국가들간과의 무역경쟁을 벌이는 것은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주요 경쟁상대는 불가리아, 헝가리, 벨지움등이었는데 최근에는 서독까지 경쟁상대로 끼어 들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COMECON 블록으로 부터의 수입을 일단 막으려고 하였으나 오스트리아는 이들 COMECON 국가에게 기계류를 수출해야 하는데, 양계산물 수입억제를 하게되면 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정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정부로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가금협회에서는 전술을 바꾸어 국산계란과 육계가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심는 것으로 수입계란과 닭고기를 몰아내려고 하였다. 지금 오스트리아는 실제적으로 가금생산물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국제 무역협정을 깨뜨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판매 촉진운동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1년도 오스트리아로 수입되는 계란은 20.2%, 육계는 19.8%가 감소하였다. 71년 5월과 7월의 가격은 83~86그로센으로 전년도 75~80그로센보다 높다. 오스트리아 가금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71년 6월을 기점으로 하여 판매 촉진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것은 간단하면



서도 멋있는 포스타를 배포하는 것이었다. 세가의 포스타를 준비하였는데 그중 제일 큰 것은 4원짜리로 썩에 반숙계란을 담은 그림으로 “Inländische Eier Sind Frischer”(국산계란은 신선하다)라는 슬로건을 달고 비엔나를 중심으로 요소요소의 거리에 붙였다.

다른 두가지의 작은 포스타는 역시 국산계란과 닭고기가 신선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을 전차, 기차정거장, 우체국 등지에 부착하였다. 그중 국산부르일러의 뛰어난 맛을 강조하는 포스타는 “Ein frisches Huhn Macht Keine Tiefkühlreisen”(신선한 닭은 핏퐁 얼려서 운반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전을 증대함과 동시에 계란시장에서 국산 계란이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하여 71년 3월 정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계란 등급을 강화하였다. 이등급은 계란을 중량과 질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중량등급은 현재 EEC 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게 하였다.

등급	중량
2	70g 이상
1	65~70g
3	60~65g
4	55~60g
5	50~55g
6	45~50g
7	45g 이하

질에 의한 등급은 “Extra(특급), Class I(1급) Class II(2급), Class III(3급)”으로 나누었으며 이외의 다른 분류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신선한 1급” “신선한 2급” “요리용 3급” 등으로 약간의 수식어는 인정하였다.

본래의 등급에서 일정기간내에 팔리지 않는 계

란은 다시 그 아래의 등급을 주고 표지를 바꿔달도록 하였다. 또 이들 등급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계란은 기술적으로 가공하도록 조치하였다.



“국산계란은 신선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포스타를 비엔나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에 배포하였다.

각 등급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tra(특급)**……작은 투명포장지에 따로 포장하여야 하며 각 포장지에 포장된 날자와, “Extra”라는 표지와 중량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급은 반드시 중량등급으로 1, 2, 3급사이에 속하여



먹음직한 닭요리와 함께 “신선한 닭은 공공 일터서 운반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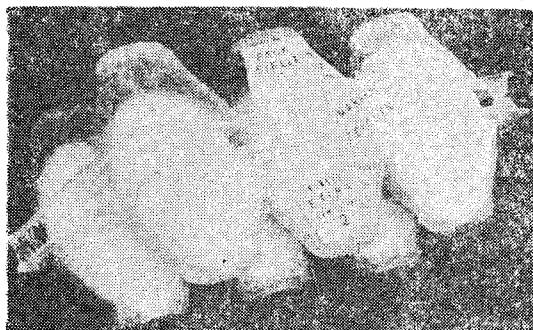
야 한다.

포장한지 2주일이 넘는 것은 표지를 떼도록 하였다. 한개의 포장에는 동일 양계장, 동일계사에서 동시에 수집한 것을 같이 넣어야 된다.

새란한 계란이나 계란 표면에 어떠한 손질도 특급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Class I (1급)**...포장한지 2주일이 넘어서는 안된다. 포장할때는 반드시 2주일후의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양계장에서 포장회사에 적어도 1주일에 2번 보내져야 하고, 낳은지 적어도 3일 이내에 포장하여야 한다.

난각은 깨끗하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안된다. 기공은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그 크기가 5mm 이하이어야 한다. 난백은 깨끗하고, 불투명하고, 아교질이어야 하며 어떠한 오염도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등급 분류법에 의하여 포장된 계란. 포장한 날짜, 장소, 중량, 등급 2라는 표시가 Extra와 함께 선명하다.>

난황은 불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보일 수 있어야 하며 난황내에 선(線)이 있어는 안된다. 계란을 굴러더라도 난황은 언제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색깔은 균일하고 오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염된 계란은 물론 안되고 인공적으로 8°C이하에서 저장되었던 것은 1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

**Class II (2급)**...2급도 아래와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1급과 같다.

기공이 7mm 이하일 것, 포장된 날부터 4주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집후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포장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Class III (3급)**...기공이 7mm 이상되거나 약간 오염되어 있거나, 난각에 손상이 온 것이지만 난각이 단단하여야 한다.

저장하였던 계란은 3급에 속한다. 배아에 반점



이 생기는 것은 허용되나, 퇴색한 것, 오염된 것, 침전물이 있는 것, 혈만이 핀 머리보다 큰 것은 안된다. 이와 같이 등급을 강화하고,

<역시 “국산계란은 신선하다”고 이것을 그대로 표시된 포스타>

수입 계란에 적용시켰다. 계란에 규격과 등급을 고무도장으로 찍도록 하였다. 냉장고 등에 저장하였던 계란에는 그 저장기간과 함께 “K”(Kühleier, 냉장계란)라는 도장을 찍었다.

“특급”에 해당하는 수입란에 대하여는 새로 투명포장을 해주었으며 다른 급에 속하는 것은 상자에 포장하도록 하였다.

질과 등급 포장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파견원에 의하여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국산계란과 수입계란을 똑같이 검사하였다. 단지 수입란에 대하여는 100kg 검사에 2실링(30원), 탁송료로 20실링(300원)을 징수하고 계란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선적되었거나 평일이라도 오전6~8시 사이와 오후 5~9시 사이에 선적된 것은 추가로 50실링(8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